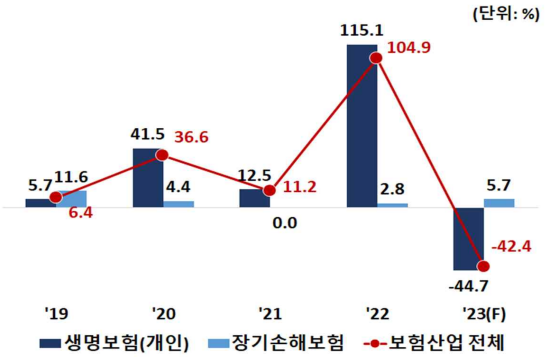
# Ⅱ 전망

## 1. 초회보험료

○ 2023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2.4% 감소한 15.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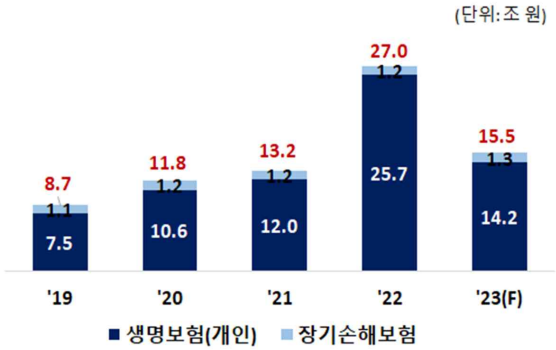
-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.7% 감소(2021년 대비 18% 증가)한 14.2조 원,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.7% 증가한 1.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
- 2022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하반기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인해 전년 대비 115.1% 증가한 25.7조 원이었는데, 2023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일시납 초회보험료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
  - 2012년과 2022년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 (2012년 25.8조 원, 2022년 23.7조 원),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
〈그림 Ⅱ-1〉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
주: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,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2〉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




주: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,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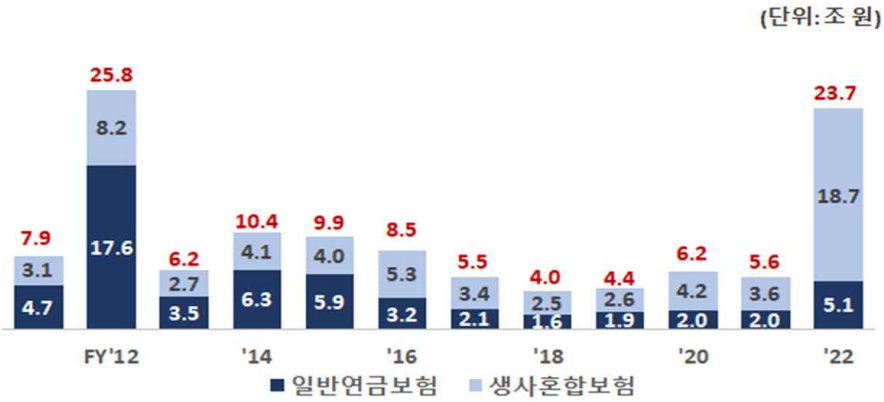
Box 1 일반저축성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

○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은 주로 저축보험 일시납 초회보험료의 대규모 유입 때문임

- 세제개편의 영향*으로 2012년에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판매가 급증하였으며,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25.8조 원을 나타냈음
- 2022년에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가입 수요가 확대되고 공시이율도 상승하면서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또다시 크게 증가하여 23.7조 원을 기록함

* 연금의 비과세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중도인출 시 과세는 강화되는 등의 세제개편으로 제도 변경 직전에 일시납 연금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가입이 크게 확대됨

〈Box 1 그림 1〉 일반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



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12년과 2022년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 (2012년 25.8조 원, 2022년 23.7조 원),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
- 다만 추가적인 만기 도래 수요의 재가입과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수요확대가 전망됨

○ 생명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의 경우 보장성보험, 일반저축성보험, 변액저축성보험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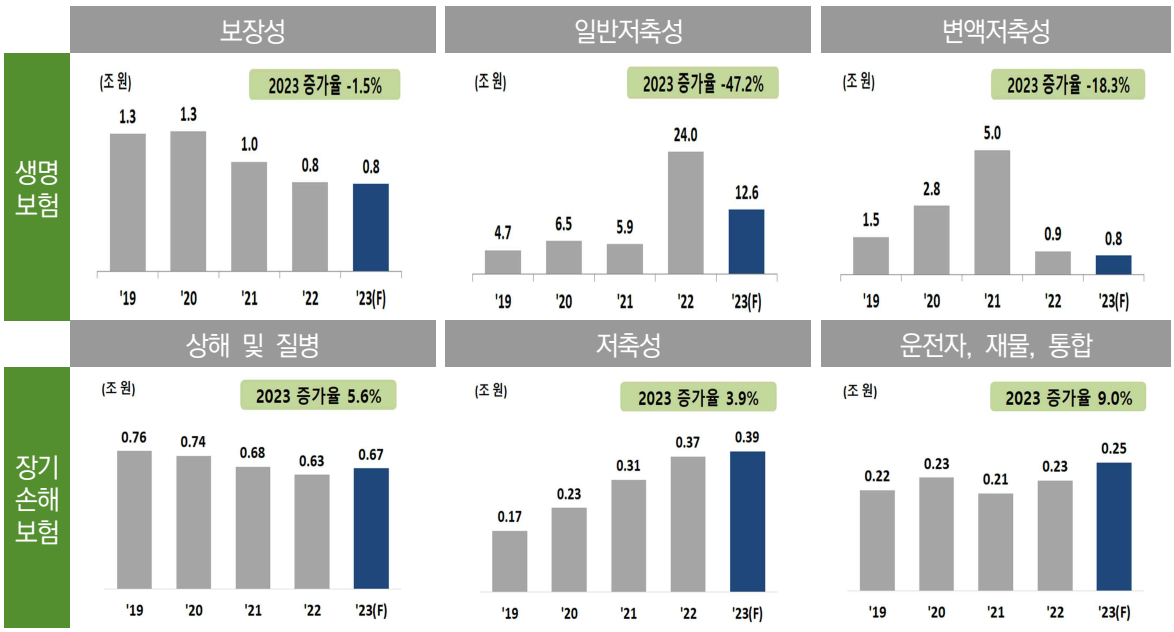
-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의 신규판매 확대가 어려워 감소할 전망임
-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연금보험 회복세에도 저축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축소로 전체적인 감소세가 전망됨

•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초회보험료의 감소세 유지가 예상됨

○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의 성장이 예상됨

•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은 2023년 상반기와 유사한 영업 경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

〈그림 Ⅱ-3〉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




주: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2. 수입보험료

### 가. 보험산업 총괄

○ 2023년 보험산업 수입(원수)보험료는 전년 대비 0.7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•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일시납 보험료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5.4% 감소가 전망됨

•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.4% 성장이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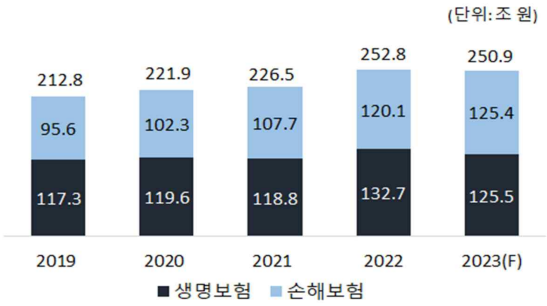
〈표 Ⅱ-1〉 보험산업 수입(원수)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| 2020 | | 2021 | | 2022 | | 2023(F)[1]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생명보험 | 119.6 | 2.0 | 118.8 | -0.6 | 132.7 | 11.6 | 125.5 | -5.4 |
| 손해보험 | 102.3 | 7.0 | 107.7 | 5.3 | 120.1 | 11.5 | 125.4 | 4.4 |
| 보험산업 합계 | 221.9 | 4.3 | 226.5 | 2.1 | 252.8 | 11.6 | 250.9 | -0.7 |
| (퇴직연금 제외) | (186.2) | (5.6) | (188.4) | (1.2) | (202.7) | (7.6) | (195.3) | (-3.7)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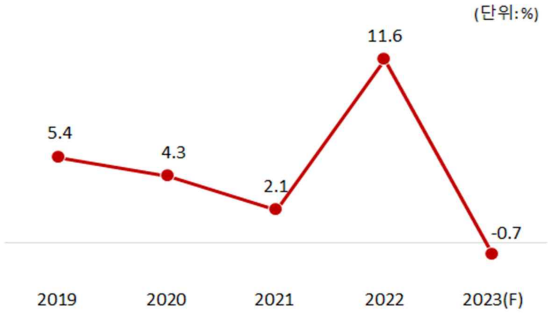
주: 1)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
〈그림 Ⅱ-4〉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5〉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나. 생명보험

### 1) 개요

○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5.4% 감소가 전망됨

-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판매 축소에도 건강 및 질병보험 중심으로 소폭의 성장이 전망됨
- 일반저축성보험은 타 금융권 저축상품과의 금리 격차 축소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가 전망됨
-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회복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감소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임

〈표 Ⅱ-2〉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구분 | 2020 | | 2021 | | 2022 | | 2023(F)[1]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보장성[2] | 46.1 | 3.8 | 45.8 | -0.7 | 47.9 | 4.5 | 48.9 | 2.0 |
| 일반저축성[3] | 34.7 | 9.8 | 32.0 | -7.8 | 45.1 | 40.9 | 33.9 | -25.0 |
| 변액저축성[4] | 15.4 | -2.3 | 16.4 | 6.2 | 11.3 | -30.9 | 10.2 | -9.6 |
| 기타[5] | 0.7 | -2.1 | 0.8 | 1.1 | 0.8 | 0.7 | 0.8 | 1.1 |
| 퇴직연금 | 22.6 | -8.5 | 23.9 | 5.8 | 27.5 | 15.5 | 31.8 | 15.4 |
| **생명보험 합계** | **119.6** | **2.0** | **118.8** | **-0.6** | **132.7** | **11.6** | **125.5** | **-5.4** |
| **(퇴직연금 제외)** | 97.0 | 4.8 | 95.0 | -2.1 | 105.1 | 10.7 | 93.7 | -10.8 |

주: 1)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2) 보장성에는 종신보험, CI, 건강보험,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
3) 일반저축성에는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
4) 변액저축성에는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셜 등을 포함함
5)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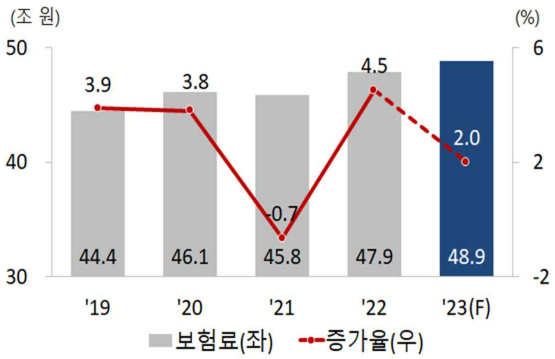
## 2) 보장성보험[3]

○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, 건강,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.0% 성장할 전망임

-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주로 사망을 담보하고 있는 일반종신보험의 신규판매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
- 다만,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와 IFRS17과 K-ICS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 등으로 질병, 건강, 상해보험의 신규판매는 확대될 것임
- 한편, 경기둔화 우려, 판매채널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, 제3보험 경쟁심화 등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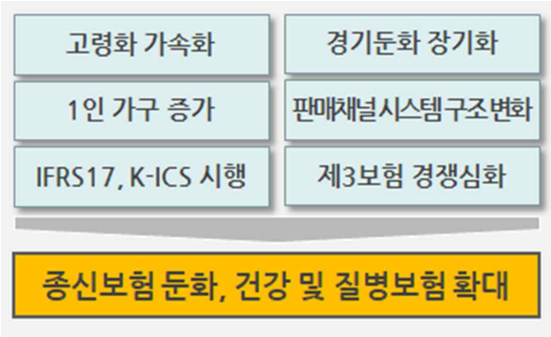
3)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·CI·건강보험·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

〈그림 Ⅱ-6〉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7〉 보장성보험 시장 환경 전망




### 3) 일반저축성보험[4)]

○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상승에 따른 저축수요 확대에도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5.0% 감소가 전망됨

- 일반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승과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, 전년도 하반기의 일시납 보험료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할 것임
- 개인연금보험은 세법개정[5)]에 따른 신규가입 유인 확대에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수요가 한정적이며, 수년 동안 지속된 수요둔화의 영향도 존재하고 있어 감소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임
-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상승, 만기 후 재가입 수요,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확대 유인[6)] 등으로 신규판매 확대가 나타날 수 있으나, 전년도 급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역성장이 예상됨
  - 특히, 저축보험은 타 금융권과의 금리경쟁을 계속하기 어렵고 만기 자금의 재가입도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있어 증가세는 둔화될 것임(〈그림 Ⅱ-9〉, 〈Box 1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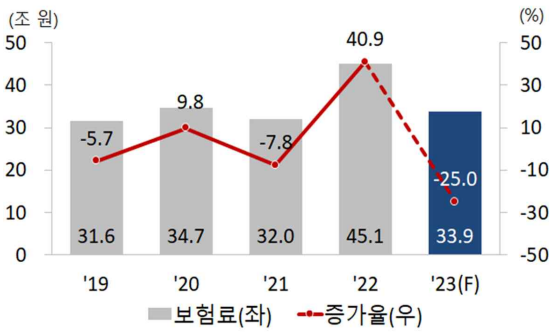
---

4) 일반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을 포함하며, 생존보험은 일반연금보험, 개인연금보험, 기타로 구성되며 생사혼합보험은 저축보험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함

5) 2023년부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됨;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2. 12. 23), "2023년 세법개편안 본회의 통과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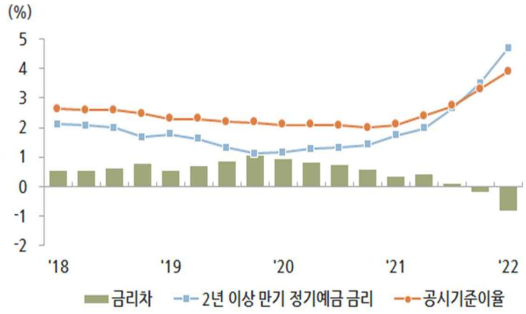
6)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저축보험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도 함

〈그림 Ⅱ-8〉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9〉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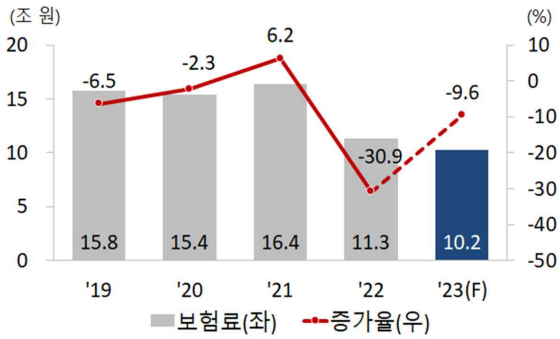

자료: 한국은행; 보험개발원

## 4) 변액저축성보험[7)]

○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안 지속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대비 9.6% 감소가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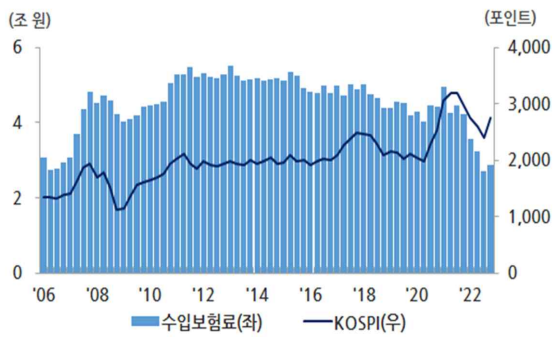
-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 등으로 주식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형 보험 상품의 신규판매 확대는 제한적일 것임
- 또한, 경기둔화의 심화와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 등에 따른 보유계약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자본관리 부담이 적은 변액보험의 판매를 확대할 유인이 있는 상황임

〈그림 Ⅱ-10〉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11〉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




자료: 한국거래소;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7)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을 포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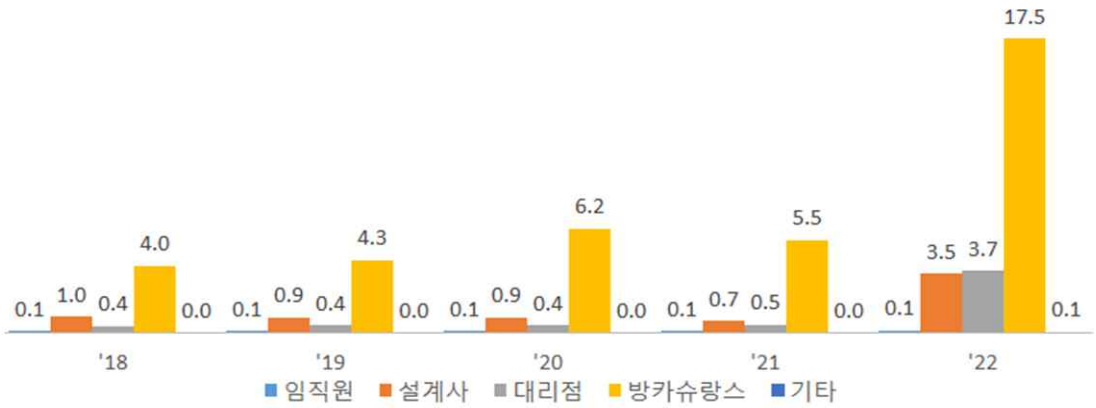
Box 2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

○ 판매채널별로 보면, 생명보험은 2022년 방카슈랑스 채널의 신규판매가 크게 확대됨

- 이는 기존 저축보험 계약의 만기, 공시이율 상승 등으로 일시납 저축보험 가입이 급증했기 때문임
- 임직원 채널의 신규판매 역시 확대되었는데, 이는 공시이율 상승 및 퇴직연금 유치경쟁으로 퇴직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임

〈Box 2 그림 1〉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추이

(단위: 조 원)




주: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○ 2023년에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역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
- 2022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한 저축보험의 재가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나, 여전히 고금리 저축상품의 수요는 존재할 것임
- 2022년 초회보험료 급성장으로 2023년에는 설계사, 대리점,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임
- 특히, 저축보험 비중이 큰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성이 더욱 클 것임

## 다. 손해보험

### 1) 개요

○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.4% 증가가 전망됨

-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.8% 증가가 전망됨
-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.2% 증가에 그칠 것임
-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, 종합보험, 기타특종보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.0% 증가할 것임
-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7.9% 감소가 전망되며, 퇴직연금은 IRP 시장 확대 등으로 6.0% 증가가 예상됨

〈표 Ⅱ-3〉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| 종목 | 2020 | | 2021 | | 2022 | | 2023(F)[1]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장기손해보험 | 55.9 | 5.3 | 58.8 | 5.2 | 61.8 | 5.0 | 64.8 | 4.8 |
| 개인연금 | 3.0 | -9.1 | 2.6 | -13.3 | 2.2 | -15.9 | 2.0 | -7.9 |
| 자동차 | 19.6 | 11.6 | 20.3 | 3.7 | 20.8 | 2.4 | 21.1 | 1.2 |
| 일반손해보험 | 10.7 | 8.3 | 11.6 | 8.8 | 12.8 | 10.0 | 13.7 | 7.0 |
| 퇴직연금 | 13.1 | 11.4 | 14.3 | 9.1 | 22.5 | 57.4 | 23.9 | 6.0 |
| **손해보험 합계** | **102.3** | **7.0** | **107.7** | **5.3** | **120.1** | **11.5** | **125.4** | **4.4** |
| (퇴직연금 제외) | 89.2 | 6.4 | 93.4 | 4.7 | 97.6 | 4.5 | 101.6 | 4.1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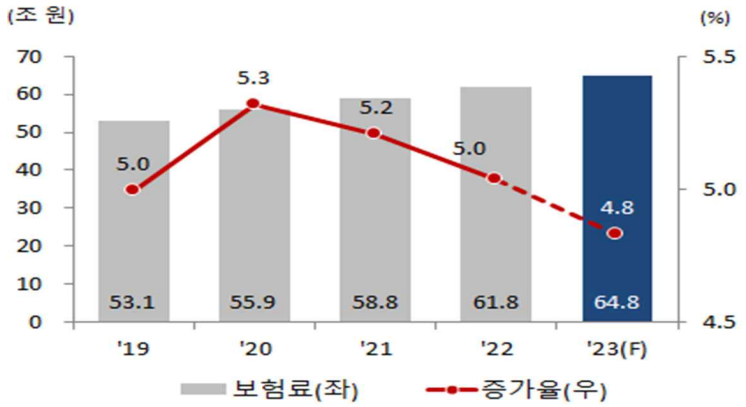
주: 1)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 2) 장기손해보험

○ 2023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.8%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율은 이전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

- 질병 및 상해보험은 IFRS17 시행으로 보장성보험의 판매 유인이 확대되고 건강에 대한 니즈도 계속 증가하여 성장세가 유지될 것임
-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의 사회적 관심 확대와 법률 강화 추세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임
- 저축성보험은 금리상승에도 보장성보험 중심의 판매전략 지속이 예상되면서 성장이 제한적일 것임

〈그림 Ⅱ-12〉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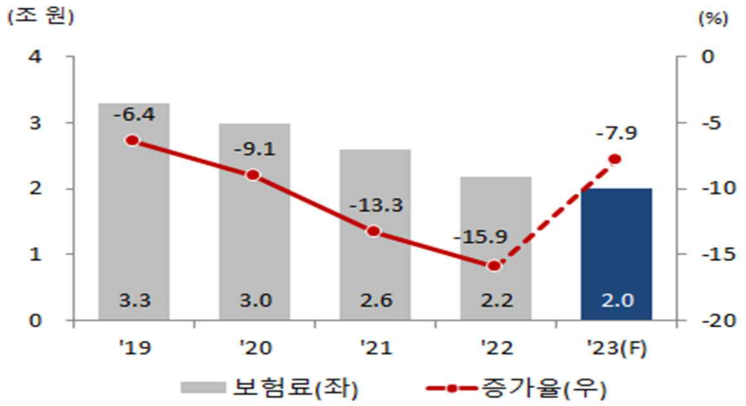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3) 개인연금

○ 2023년 개인연금[8] 원수보험료는 감소세가 줄어들어 전년 대비 7.9% 감소가 전망됨

-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[9]로 신규가입은 증가할 것이나 지속된 감소세로 인해 역성장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임

〈그림 Ⅱ-13〉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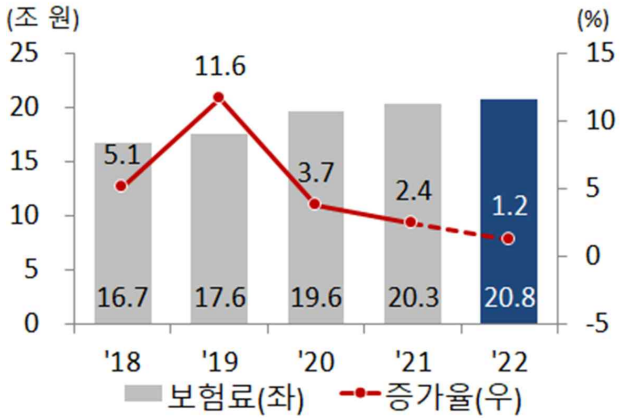
8)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가운데 하나임
9)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됨

### 4) 자동차보험

○ 2023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조정, 온라인채널 확대,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1.2% 성장에 그칠 것임

-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2023년 초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됨[10)]
-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는 높아짐
-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[11)]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임

〈그림 Ⅱ-14〉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# 5) 일반손해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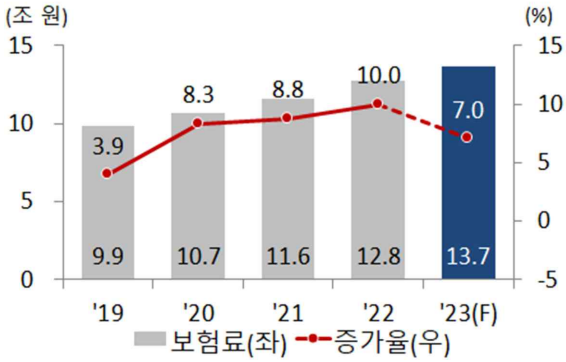
○ 2023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7.0%의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임

- 화재보험은 주택 화재보험의 수요 확대로 2.0% 증가가 예상됨
- 해상보험은 수·출입 물동량 확대, 조선수주 증가, 환율 영향 등으로 3.9% 증가가 전망됨
- 보증보험은 신용보증 수요 중심의 2.4% 성장에도 증가세는 이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임
- 특종보험은 배상책임시장 확대, 신규위험 및 의무보험 확대 등으로 8.5% 성장이 예상됨

---

10) 2023년 2월까지 약 2%대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루어짐
11) 기획재정부(2022. 12. 19), 「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」

〈그림 Ⅱ-15〉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표 Ⅱ-4〉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전망

(단위: 억 원, %)

| 종목 | 2022 | | 2023(F)[1]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보험료 | 증가율 | 보험료 | 증가율 |
| 일반손해 합계 | 127,641 | 10.0 | 136,635 | 7.0 |
| 화재 | 3,195 | 0.3 | 3,260 | 2.0 |
| 해상 | 8,762 | 17.8 | 9,103 | 3.9 |
| 보증 | 20,842 | 2.6 | 21,342 | 2.4 |
| 특종[2] | 94,842 | 11.4 | 102,930 | 8.5 |

주: 1)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2) 특종보험에 해외원보험이 포함됨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라. 보험권 퇴직연금

○ 2022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이 15.5%, 손해보험이 57.4% 증가함

- 일부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시장 재진출,[12] 퇴직연금 시장 확대,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유치경쟁 심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규모는 증가함
  - 공시이율 경쟁으로 적립금 유출이 우려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고객확보 노력이 이어짐
- 반면, 퇴직연금 적립금 측면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사업자 간 공시이율 경쟁심화로 퇴직연금 사업자 간 적립금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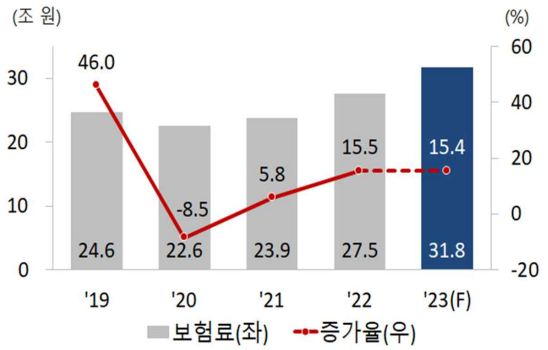
○ 2023년 보험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생명보험이 15.4%(31.8조 원), 손해보험이 6.0%(23.9조 원)가 전망됨

- 퇴직연금 유치경쟁으로 보험산업에서 이탈한 적립금의 영향 등으로 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둔화될 것임
-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세액공제 혜택 증가[13]에 따른 IRP 시장 확대와 공시이율 상승은 퇴직연금 보험료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-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,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및 임금상승률 둔화,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확대 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임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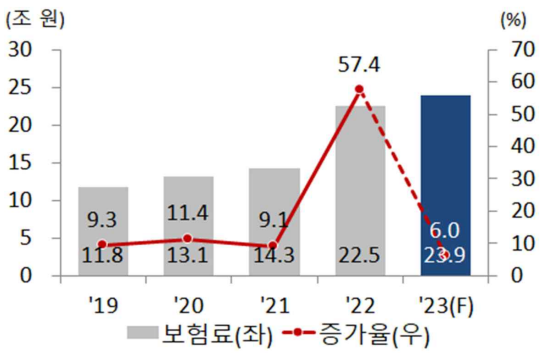
12) 신규 영업을 중단하였던 메리츠화재가 2022년 퇴직연금 사업에 재진입하였음
13)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, 퇴직연금 포함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됨

〈그림 Ⅱ-16〉 생명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그림 Ⅱ-17〉 손해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




주: 보험연구원 전망치(F)임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## 3. 성과의 편차

○ 최근 보험회사 간 성장성, 수익성,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, 경제·금융 불확실성 지속, 영업경쟁 심화,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- 경제·금융 환경이 악화될 경우 수익성·건전성이 열위에 있는 회사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될 수 있음
  - 산업 전체의 이익이 증가할 때는 대형사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가 하락하는 반면, 산업 전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대형사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[14)]
- IFRS17 사전공시를 분석하면,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간, 산업 내 보험회사 간 당기순이익의 편차가 IFRS4 기준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
  -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IFRS4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1,840억 원, IFRS17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3,404억 원이며,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IFRS4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4,283억 원, IFRS17 당기순이익의 표준편차는 6,406억 원임
  - 2022년 말 IFRS4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는 생명보험산업 3조 7,039억 원, 손해보험산업 4조 6,775억 원인데 비해 IFRS17 기준 당기순이익 규모는 생명보험산업 3조 9,337억 원, 손해보험산업 7조 787억 원으로 산업 간 차이가 커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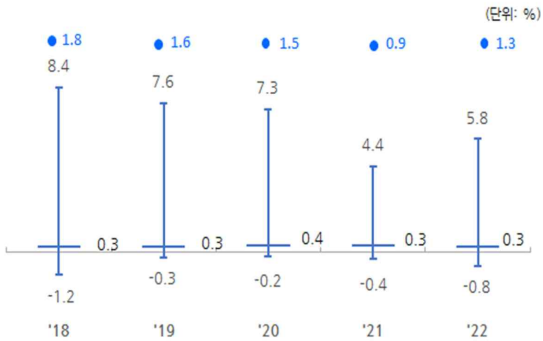
14) 조영현·최원(2023. 1. 30), 「손해보험회사의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## Box 3 보험회사 성과 편차의 추이

○ 2021년까지 감소했던 보험회사 수익성의 편차는 2022년에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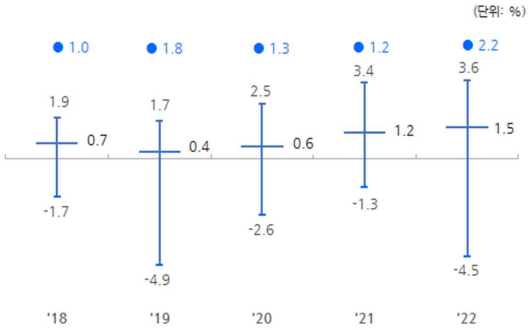
- 2021년 ROA의 표준편차는 0.9%(생명보험), 1.2%(손해보험)이었으나, 2022년에는 각각 1.3%, 2.2%로 확대됨

〈Box 3 그림 1〉 생명보험회사 ROA 분포




주: 1) '–'는 ROA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자료: 금융감독원

〈Box 3 그림 2〉 손해보험회사 ROA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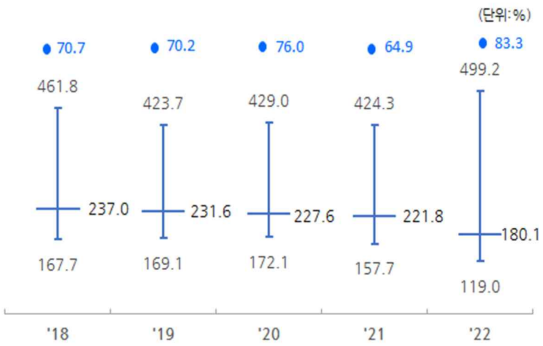



주: 1) '–'는 ROA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3) 손해보험 11개 사를 대상으로 함
자료: 금융감독원

○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표준편차도 2022년에 확대되어 생명보험회사 83.3%, 손해보험회사 58.1%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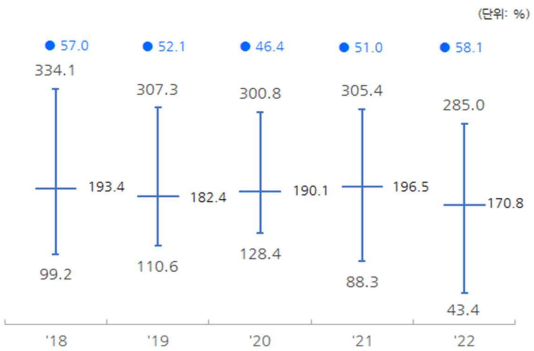
- 2023년 1분기 K-ICS 비율(경과조치 전)의 표준편차는 생명보험회사 91.2%, 손해보험회사 56.2%임

〈Box 3 그림 3〉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분포




주: 1) '–'는 지급여력비율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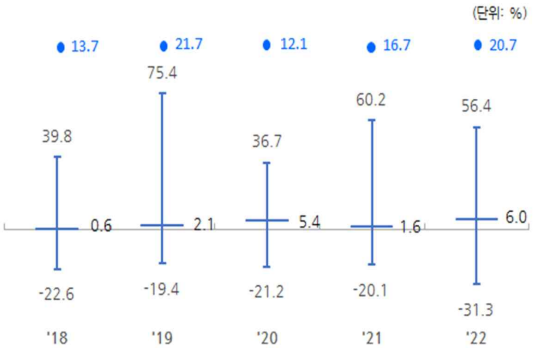
〈Box 3 그림 4〉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분포




주: 1) '–'는 지급여력비율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3) 손해보험 11개 사를 대상으로 함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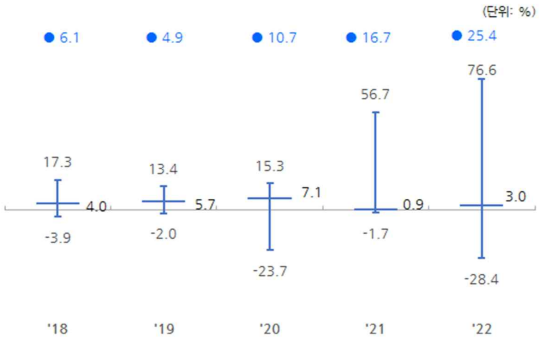
○ 보험료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최근 3~4년간 확대되었으며, 2022년 생명보험회사 20.7%, 손해보험회사 25.4%를 나타냄

〈Box 3 그림 5〉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성장성 분포




주: 1) '–'는 수입보험료 성장률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〈Box 3 그림 6〉 손해보험회사 보험료 성장성 분포




주: 1) '–'는 원수보험료 성장률 최댓값, 최솟값, 중위값을 의미함
2) '●'은 표준편차를 의미함
3) 손해보험 11개 사를 대상으로 함
자료: 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